

일상속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꿈꿔요

2017 文化로 물들다

5 전방위 예술가 성유진

작년 광주여성재단 위안부 전시 ‘나비의 꿈’ 주목
안나푸르나 트레킹 하며 예술의 역할 다시 생각
위작 논란 보며 예술가 본질 묻는 전시회 계획
양림동 간판 작업 진행·작가 소개 퍼포먼스 예정

“아직도 ‘예술은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많아요.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드로잉 작품을 건네고 거리에 벽화를 그리며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싶어요. 문화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유진(여·35)씨는 지난해 가장 활발히 활동한 작가 중 한명이었다. 3월에는 영흥 식당을 그림으로 꾸몄는가 하면 5월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00인의 5·18 릴레이아트’에 참여했다. 또 소촌아트팩토리·신안동·영광 흥농 등 곳곳에서 벽화를 그리는 등 개인·단체전, 공공미술, 강의, 예술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광주여성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주관한 ‘마르지 않는 눈물 : 나비의 꿈’ 작업이 주목을 받았다. 성 작가는 담양에서 거주하는 광예남 할머니와 함께 그린 작품 ‘나의 살던 고향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8일 광주예총 창작 스튜디오에서 신년 계획 구상에 몰두 중인 성 작가를 만나 예술에 대한 생각과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조선대 미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기를 졸업한 성 작가는 그동안 여성을 모델로 욕망, 판타지 세계, 사머니즘을 작품에 담았다. 여성과 사회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의 홍가혜씨가 무죄를 받는 모습을 본 뒤다.

“당시 2인전을 약 2주 남겨놓고 우연히 법원에서 홍가혜씨를 봤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가

한 여성을 어떻게 죄인으로 몰아가는지 볼 수 있었죠. 전시 주제를 ‘웰메이드 길티’(잘 만들어진 무죄)로 급히 바꾸고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지난해 위안부 작업도 이런 생각이 있기에 가능했다. 여성재단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작업을 구상했지만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술심리치료 교육을 받았던 그는 직접 피해 할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친근하게 대하고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를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느꼈다.

성씨는 “꼭예남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은 예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

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올초까지는 꼭 가보고 싶었던 히말라야를 올랐다. 약 20일간 네팔에 머물며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다. 새해 계획과 함께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고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순수한 네팔 사람들과 어울리며 속세에 찌든 때가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식당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려 봤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작은 그림 한장이지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예술의 역할과 본질을 다

시 생각한 성 작가는 올해 전시 주제를 ‘아트 오르세’(Art Orsay)로 잡았다. 위작 논란에 휩싸인 고(故)천경자, 이우환 사태를 보고 ‘화가는 예술가인지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인지’ 다수 민감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전시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등 유명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는 양림동 간판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식당, 헤어샵, 공방 간판을 색다르게 꾸미기 위해 구상 중이다.

또한 올해 ‘광주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해 다양한 화가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작가부스에 참여했던 성씨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작품을 프린팅한 대형 걸개그림 위에서 퍼포먼스를 해 발길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복장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무용가, 연주자에 비해 화가는 작품만 걸어 놓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품뿐 아니라 작가 자신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시 분위기와 맞는 드레스를 입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예고,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성씨는 한국국제대전 특선, 광주시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고 광주문화재단·함평 잠월미술관·문화공간 ‘바람’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현재 ‘다원예술’ 대표, 사생회·아트바이러스·예지모, 원우회, 그라운드 제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성유진 작가가 18일 광주예총 창작스튜디오에서 양림동 간판 작업에 활용하는 작품 ‘Lust stain’을 소개하고 있다.



▶김영일 작
‘따뜻한 봄날’

‘소나무’ 신년기획전 ‘봄, 여름, 가을...’

27일까지 갤러리 봄

지난 1996년 창립한 이래 매년 신선했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아트그룹 ‘소나무’가 27일까지 예술의거리 갤러리 봄에서 신년기획전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1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등 봄이 어서 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위진수 작가는 매화 작품 ‘매화’를 출품했다. 분체와 먹을 사용해 하얀 매화가 두드러진다. 정경래 작가가 작업한 ‘생명의 봄’은 젊은 여인을 배경으로 노란 봄꽃을 그렸다. 쌀알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질감미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조규철 작가의 추상화 ‘봄날산책’은 온통 초록빛이다. 짙게 우거진 수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주빛 꽃이 눈길을 끈다.

류재웅 작가도 봄에 피는 산수유꽃을 작품에 담았다. 노란 기운이 만연한 작품 ‘산수유’는 따뜻한 남도 정서가 느껴진다.



홍원철 작 ‘무들’

한편 ‘소나무’는 지역 작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의사, 세무사, 공무원, 교수 등 명예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단체다. 단체명에는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번치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매년 정기전 이외에 2~3년마다 해외 전시를 열고 있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초·중생 전통문화 체험 교실

추운 겨울 집에서 TV와 스마트폰을 벗삼아 지내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20~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논두렁 전래놀이 교실’을 연다.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인 방패연과 팽이를 직접 만들어보고 뛰여노는 시간으

로 구성했다. 또 떡국 만들기 등 설날 세시풍속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논두렁 전래놀이교실’은 매일 20명씩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 희망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www.ymcackwangju.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신청 062-373-1365. /김용희기자 kimyh@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